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 [출제의도] 노자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노자이다. 노자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려는 인위적인 지식이 사회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자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소박(素樸)함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각 개인이므로,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3. [출제의도] 정약용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라고 보았고, 사덕은 사단을 확충할 때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는 것[存心養性(존심양성)]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로서 무한하고 유일한 실체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 이외에 다른 실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신 안에 포함된 다양한 양태들이다. 또한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오온(五蘊)의 일시적 결합으로 구성된 인간이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에 처한다고 보았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므로 '나'라고 주장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오온의 실상을 파악하여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이상 사회에 대한 모어와 베이컨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모어, 을은 베이컨이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사유 재산이 없고 재화가 공정하게 분배된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는 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 기술이 활용된다. 한편 유토피아와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 활동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

7. [출제의도]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스미스, 을은 마르크스이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부(國富)가 증대될 수 있다고 보았고, 국가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분업에 의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이 갖는 의미가 왜곡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미스와 마르크스는 공통적으로 분업화된 노동이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추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신의 명령인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목자의 입장 이해하기

가상 대화의 스승은 목자이다. 목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전쟁은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에게 큰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목자는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고, 자국과 타국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兼愛(겸애)] 비공(非攻)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출제의도] 맹자, 순자, 장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맹자, 을은 순자, 병은 장자이다. 맹자는 누구나 의로운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천[集義(집의)]하면 대장부(大丈夫)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성왕(聖王)이 제정한 예(禮)로써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자는 예와 같은 인위적인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장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성적 덕이다. 또한 품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의 안내를 받아 올바른 행동을 꾸준히 훈련하여 습관화하면 갖출 수 있는 덕이다. 한편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12.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即理)를 주장하였고, 마음이 성(性)과 정(情)을 모두 포괄[心統性情(심통성정)]한다고 보았다. 반면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였고, 마음을 바로잡아[正(정)]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아우렐리우스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스토아학과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르는 삶이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르는 삶이라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우렐리우스와 에피쿠로스는 공통적으로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지눌과 원효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지눌, 을은 원효이다. 지눌은 단박에 진리를 깨친 후,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아 점진적으로 습기(習氣)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효는 다양한 불교 종파의 교리들이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심(一心)으로 종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지눌과 원효는 공통적으로 중생은 본래부터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공자, 로크, 루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공자, 을은 로크, 병은 루소이다. 공자는 국가를 가족의 질서가 확장되어 형성된 공동체로 보았다. 로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보장받으려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인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시민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키르케고르, 을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주체적 결단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공통적으로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칸트와 흄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칸트, 을은 흄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오직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라고 보았으며, 행위의 도덕적 가치 유무는 행위를 일으킨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흄은 도덕감을 통해서 덕과 악덕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동학, 원불교, 동도서기론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동학의 최제우, 을은 원불교의 박종빈, 병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동학은 봉건적 신분 질서를 폐지하고 외세를 배격해야 한다고 본다. 원불교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동도서기론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현을 위해 서양의 기(器)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원불교와 동도서기론은 공통적으로 도학(道學)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19.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사단을 이(理)가 발(發)하여 기(氣)가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고, 칠정을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탄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한 것으로 보았고, 사단을 칠정의 선한 측면[一邊(일변)]으로 보았다. 한편 이황과 이이는 공통적으로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칠정은 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양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반면 밀은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였다. 한편 벤담과 밀은 공통적으로 쾌락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